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사도행전 9:15

박범서 목사님

* **행9: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히시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심정에 공감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인생 전환점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선교사협수와 선교대회가 있었다. 그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 제목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필리핀 등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더 이상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경제는 발전하는데 정신문제와 영적문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조만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도 그 전쟁에 같이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뉴스에서는 사람이 사탄에게 잡혀있지만 할 수 있는 범죄소식을 볼 수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몰고 가는 흑암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흑암세력은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를 통하여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 이것은 대통령이 할 수 없고 재벌이 할 수 없다.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흑암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영적으로 파수꾼은 흑암을 막는 빛을 비추는 자를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파수꾼은 일어나서 파수대를 지킨다. 다른 사람은 가기 싫으면 안 가지만 파수꾼은 혼자서라도 가는 사람이다. 그 파수꾼이 가져야 될 망대가 있다. 아무리 파수꾼이라도 망대가 있어야 빛을 비출 수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고 했다. 모든 이론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이 사로잡힌 것들이 있다.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나의 것, 창세기 11장의 나의 성공으로 우리 안에 짐을 짓고 있고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절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으로 망대를 세워놓고 있고, 불신자상태로 우리 안에 신전을 만들어놓고 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망대이다. 이번 선교협수와 선교대회를 통해 전달하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한 일곱 가지 미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1.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다.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1) 첫 번째는 갈보리 산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문제와 영적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사탄의 망대를 부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갈보리 산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란다. 갈보리 산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언제 내 안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사실이 나에게 믿어질 때,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질 때 내 안에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다. 그러면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 것이다. 응답이 와도 '그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응답이 오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축복이 남아있구나' 생각하면 된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문제 배후의 흑암이 무너진다.

(2) 두 번째 감람산 언약 붙잡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3, 9, 3으로 정리해 주셨다.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현장에 빛을 비추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램넛트를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히지는 것이 감람산 언약이다.

(3)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 언약이다. 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겠는데 문제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미션을 붙잡고 집중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오직, 사도행전 1장 14절의 오로지, 사도행전 2장 42절의 전혀. 마가다락방 집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 전도의 문과 모든 문이 열리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것이다.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할 때 무능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인 줄 아는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2. 두 번째 미션은 교회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는 것이다.

(1)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야 한다. 성경 속 일곱 램넛트와 응답받은 사람들은 모두 '나의 오직'을 찾았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간다고 했다. 나의 오직이 발견된 것이다. 쓸 데 없이 많은 것 할 필요 없다. 꼭 해야 될 것을 하면 된다. 항상 생각하라.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류목사님의 오직은 동기 없는 복음과 동기 없는 전도였다. 불신자도 오직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전교 1등하는 친구는 오직 공부였다. 서울대에 가더라. 서울대에 가서 여자친구 생기기까 오직 공부와 오직 연애만 하더라. 술자리도 가고 놀기도 하지만 그걸 별로 중심에 담지 않고 대충한다. 중심이 오직 공부, 오직 연애였다.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오직 하나가 성공하더라. 제가 예전에 응답받았던 것도 오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이었다. 눈 떠도 하나님 생각, 눈 감아도 하나님 생각 하는 게 은혜였다. 지금처럼 복음을 자세히 안 것도 아닌데 사람이 단순해진다. 이래도 하나님이고, 저래도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찾는데 그 안에 공부도 있었다. 하나님 중심으로 고민하다가 다락방도 만나게 되었다. 뭘 오직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뭘에 오직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오직 예배부터 하라.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힘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예배에 나와서 집중하시기 바란다. 예배를 통해 내 마음에 감동되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 실천을 하시면 된다. 그러다 보면 나의 오직이 보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힘이 생긴다. 잘 모르겠다면 오직 복음하고, 안되더라도 오직 예배해라. 그러면 그러다 구체적인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나의 전도다. 그러면 거기에 또 오직 하시면 된다.

(2) 유일성. 오직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유일성이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흉내를 못 낸다. 제가 대학부와 청년부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오직하면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 아무도 못 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그것이 유일성이다.

(3) 재창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가 교회 행정목사를 하고 있는데,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았다.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항상 참고한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단되기도 했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참고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의미를 생각해 본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꼭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음 안에서 재창조가 된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찾도록 도와주라고 하셨다. 오직 그리스도하면서 오직 예배 성공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란다.

3. 세 번째 미션은 전도에 관한 것이다. 언제든 땅 끝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진짜 땅 끝까지 가려고 할 때 시공간초월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떻게 시공간초월을 할 수 있을까?

(1) 치유망대. 치유할 수 있는 망대를 만들면 시공간을 초월한다. 램넛트 일곱 명이 모두 치유를 했다. 요셉이 애굽을 치유했고, 다니엘은 네 명의 왕을 치유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보 섬에 가서 무속인을 치유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치유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우상을 치유했다. 이것 세 군데를 했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초월의 응답을 바울에게 주셨다. 제가 교역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이런 현장을 몇 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초등학교 전도하다가 귀신 보는 친구를 많이 만났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보니까 귀신을 안 본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애들이 귀신을 봤다고 하

면 실제 귀신이 아닌 경우도 많다. 다른 걸 보기도 하고, 혼자 무서워서 착각하기도 한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생들이 귀신을 봤다고 하면 꼭 몇 번 봤냐고 물어본다. 한 번 봤다고 하면 착각일수도 있다고 알려준다. 그런데 간혹 수백 번, 수천 번 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도 본다 고 한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말해준다. 이걸 잘못 보고 하는 말들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귀신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영적사실을 보게 하셨다. 치유방대를 세우면 시공간이 초월된다.

(2) 렘넌트망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 렘넌트망대를 세우면 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는 전 세계 인제가 다 몰려온다. 후대를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제가 개포동에 살았었다. 밤 열 시, 열한 시가 되면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더라. 왜 그런가 하면 그곳이 후대를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어린 이집 잘 하는 데 있으면 어떤 부모님은 어린이집 근처로 이사까지 간다. 바울이 이 일을 했다. 회당으로 갔다고 했다. 서원으로 갔다고 했다. 이게 시공간초월의 길이다.

(3) 이방인의 망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할까? 이방인의 망대를 세우면 된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노예 되고, 포로 되고, 속국 되고, 유랑민이 된 이야기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땅 끝까지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 현장을 살렸다. 렘넌트 일곱 명은 전부 TCK였다. 우리 한국에도 와 있는 이방인이 있다. 이들을 살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다. 땅 끝까지 가게 된다.

4. 나의 237을 가져야 한다. 237나라 중 하나를 품으라. 237나라를 우리가 다 살릴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나의 한 나라를 정하라. 못 하더라도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야 된다. 다윗이 자기 대에 성전건축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만 보고 축복하셨다. 우리가 237나라 다 못 살리더라도 하나님과 중심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한 나라를 정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하셨다. 일단 한 나라를 정하라. 한 나라를 정해도 나중에 시간표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스라엘 선교보고를 듣고 와 닿아서 나의 선교지를 이스라엘로 붙잡았다가 나중에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 같이 봉사한 파키스탄을 보며 파키스탄을 나의 선교지로 붙잡았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2년 동안 공부할 기회가 있어 중국에서 공부하다가 나의 선교지는 중국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영어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영국이 나의 선교지다. 참사랑교회의 출석인원이 237명 남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어도 된다. 교회에서 정해줬다면 그걸로 하면 된다. 그런 것 없으면 나 혼자 마음에 품으시고 또 바뀔 때 바꾸면 된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것이다.

5. 다섯 번째 미션은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1) 기도의비밀의 흐름. 기도의비밀의 흐름이 있다. 시대를 봐야 된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다. 왜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것을 본 것이다. 한나가 아들을 얻기 이전에 시대 회복할 나실인을 놓고 기도했다. 그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것이다. 오바다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 100명을 키웠다. 그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것이다. 이 흐름을 보는 것이 첫 번째다.

(2) 기도의비밀의 통로. 그리고 이 기도 비밀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있다. 전도자를 돕는 것이 통로다. 정말 전도할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은 그 도운 사람을 축복하신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다. 복음 소중한 줄 알고 전도 귀한 줄 알고 전도할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도의비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고 했다. 왜 보호자일까? 전도자인데 약하고 부족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자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것이 저 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식주인은 전도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마음을 주신다. 제 친구 중에 첩의 아들이 있었다. 경제적인 도움 없이 상처받고 방황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니까 상처를 극복하고 결단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 용돈을 쪼개서 돕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돕게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게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 전도자는 전도자를 돕고 싶어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오는 통로이다.

(3) 기도의비밀의 내용.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

테니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 플랫폼, 이 생명이 빛으로 전달되는 것이 파수망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안테니이다.

6. 여섯 번째 미션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성경의 응답받은 인물들은 끝을 알고 갔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출애굽을 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정확한 미래로 붙잡고 갔다. 스룹바벨은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정확한 미래로 붙잡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반대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했다. 초대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정확한 미래를 붙잡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먼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보 내신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절대미래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다.

(1) 남은 자를 절대미래로 붙잡아야겠다. 버려진 자,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남은 자를 찾고 돕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2) 후대 키우는 자다. 예수님께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 후대가 복음화되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이것을 나의 미래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가져가실 것이다.

(3) TCK이다. 렘넌트 일곱 명이 다 TCK였다.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TCK가 복음으로 회복되어 자기 나라를 살리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대미래다. 이 절대미래를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란다.

7. 일곱 번째 미션은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5가지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란다.

(1) 영세 전 그리스도.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 상처를 그리스도께서 해결 하셨다.

(2)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3)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4) 재림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5) 심판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란다.

일곱 가지 미션은 사실 무엇을 하기도 어떤 것은 목상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결단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붙잡고, 기도를 통해 붙잡으시면 된다. 예배에 성공하시면서 3가지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란다.

① 아침기도 - 힘을 얻는 기도. 아침에 눈을 뜨면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란다. 3오늘을 하시면 제일 좋다. 나의 평생의 언약인 이면계약과 원단의 언약, 이번 주에 주신 언약을 확인하며 힘을 얻으시기 바란다. 이걸 가지고 제대로 집중해도 되고, 운동하시면서 힘을 얻으시면서 해도 된다. 목상과 운동을 같이 해도 된다.

② 낮기도 - 분별하는 기도. 낮에는 보통 활동을 한다. 혼자 있기 힘들다. 그리고 만남도 생기고, 사건도 생긴다. 그것을 아침에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다.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지 아침에 내가 힘을 얻은 그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다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 그 때 거기에 복음을 전달하시면 된다. 그게 기도다. 구원의 길을 다 전달할 수도 있지만 가볍게 내가 가진 답을 전달하면 된다. 내가 아침에 붙잡은 언약을 전해주면 된다. 내가 사실적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을 전달할 때 상대방도 살아난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할 시간표가 오면 전하고 영접하면 된다.

③ 밤기도 - 답을 얻는 기도.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란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것을 기록해 보라. 그리고 아침에 붙잡은 말씀을 내가 가진 말씀과 연결해 보라. 그러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일들에 답이 보인다. 답이 보인다면 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도전할 것을 정리해서 기록하라.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길게 3, 9, 3기도 속에서 일곱 가지 미션을 목상해 보시기 바란다.

이것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기도로 누릴 수 있다. 내 안에 빛이 현장에 전달된다. 흑암을 막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란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흑암을 막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 가지 미션을 누리고 실천하게 하시며 기도를 누림으로 내 안에 빛이 현장에 전달되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